



중국 경기둔화 장기화 우려

김세중 선임연구원

- 중국 4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등 경제지표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국경제가 2/4분기에도 회복세를 보이기 어렵고 중국 경기둔화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.
 - 5월 13일 중국 통계국은 4월 산업생산 증가율이 3월의 8.9%보다 0.4%p 상승한 9.3%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으나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정적으로 해석됨.
 - 4월 소매판매 증가율도 3월의 12.6%보다 0.2%p 상승한 12.8%로 나타났으나 이는 금값 하락으로 인한 귀중품 소비가 72%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며, 1~4월까지의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0.6%를 기록하면서 1~3월까지에 비해 0.3%p 하락함.
 - 2012년 중국 경제는 7.8%의 성장에 그치면서 13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, 2013년 1/4분기에도 정부의 경기부양에도 불구하고 7.7% 성장함에 따라 중국경제가 고성장세를 마감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- 5월 1일 발표된 중국 4월 구매자관리지수(PMI)도 3월 50.9보다 0.3포인트 하락한 50.6을 기록하였으며, 이는 중국 제조업 경기가 수출주문 부진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함.
 - 3월 PMI가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 제조업 경기 회복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으나 4월 PMI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중국경제의 기초체력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됨.
 - 신규주문 PMI 지수는 3월 52.3에서 0.6포인트 하락한 51.7을 기록하였고 신규 수출주문은 3월 50.9에서 2.3포인트 하락한 48.6을 기록함.

-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PMI지수 하락으로 중국 정부가 추가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대부분은 2013년 1/4분기 이후 시작된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중국정부의 추가적인 부양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임.
 - 2013년 1/4분기 중국정부는 중국의 신용 공급량을 의미하는 사회융자총량(total social financing)을 전년동기에 비해 58% 확대한 바 있음.

- IHS Global의 이코노미스트 Alistair Thornton은 중국경제 성장이 둔화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신용공급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함.
 - Wall Street Journal은 대중국 수출의 경제 의존도가 높은 대만의 1/4분기 경제성장률이 2012년 4/4분기 3.7%보다 2.2%p 하락한 1.5%를 기록했다고 지적하고 대만의 경기둔화도 중국 경제전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함.
- 4월 경제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은행들은 2013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일제히 하향 조정함.
- 2013년 초까지만 해도 투자은행들은 중국경제의 경우 2012년 4/4분기의 경기회복세가 2013년 들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으며, 월스트리트 저널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2012년 7.8%보다 0.2%p 상승한 8.0%의 성장률을 전망한 것으로 나타남.
 - 그러나 5월 초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재 실시한 설문에서는 평균적으로 2013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7.8%로 하향조정한 것으로 나타남.
 - JP Morgan은 2013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8.2%에서 7.6%로 대폭 하향조정하였으며, Standard Chartered 또한 기존의 8.3%에서 7.7%로 하향조정하였고 HSBC는 8.6%에서 8.2%로 하향조정하였으나 가장 높은 수준의 전망치를 유지함.
- 최근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중국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중국의 경기둔화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국경기 둔화에 따른 리스크요인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.
- 동부화재가 중국 현지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로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삼성화재가 중국 내 자동차 책임보험 판매 허가를 받고 영업에 나서는 등 손해보험 회사를 중심으로 중국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음.
 - 중국의 경기둔화가 장기화될 경우 손해보험 시장의 성장성도 둔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할 것임.

(Financial Times 등)